

미주 모퉁이들선교회 기도제목(2023.1.30)

1. 북한 지하성도를 긍휼히 여기며 제사장적 기도로 회개합니다.

북한 지하성도들은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 절개와 인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오나 저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당과 국가라는 거대 통치체제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고 마는 죄악도 있음을 진솔하게 인정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것으로만 돌리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며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저들의 심정과 하나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보살피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딤후 5:7-8)” 행할 법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도 가족 부양과 생계를 위해 처절한 돈벌이에 나서야 하기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하고 나아가 가정파탄을 불러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드러내기에 앞서 생존의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세속적 생활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 중국 선교를 위하여/ 최근 중국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이 중국에 거하며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 일꾼이 보낸 긴박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각 지역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나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고사하고 약이 동나서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도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준비해 간 약을 복용하였고, 이웃들과 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이나 업무들이 거의 멈춘 상황이고 사람들도 집 밖으로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각 지역의 교회들도 대면 예배와 모임들을 준비했다가 대부분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중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 일꾼이 보낸 긴박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편 62 편 5-8 절에 “나의 령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힘과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신 말씀으로 중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천명하고 전역을 통제하던 것을 풀자 다시 또 감염자가 급증해 혼란과 위기에 빠진 중국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국 지도부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루 빨리 작금의 상황이 안정되어 모든 영역에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키는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기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중국에 거하며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